

Summary

팟캐스트는 계급이 현대 사회에도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그렇다면 현대 영국 사회의 계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Great British Class Survey가 제시한 7계급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들은 계급이 단순히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그들은 계급이 경제, 사회, 문화적 자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층적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현대 사회의 계급별 생활 양식이 통상적으로 예상되어온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중산층은 지인들과의 만남 등의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되나 그렇지 않다는 점, 새로 생겨나는 문화(게임, 컨템포러리 음악 등)의 향유층 확대 등이 그 예시다.

Mike Savage 교수와 그의 팀이 BBC와 함께 진행한 British Survey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계급과 현대적 계급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자본을 통해 현대 영국의 계급을 새롭게 정의내림을 통해서 말이다.

연구를 위한 설문은 BBC 온라인 페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자그마치 16만명으로,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16만명이라는 표본은 영국 국민 전체라는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BBC 뉴스, 혹은 팟캐스트 등을 소비하는 더 교육받은, 상위 계층의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ike와 팀은 표본 크기는 훨씬 작지만 모집단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시장 조사 기업과 합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대상이 된 표본 크기는 1000명이다.

크기는 작지만 사실상 연구 결과-7개 계급-는 이 1000명에 대한 조사에서 나왔다. 16만명이나 응답한 조사는 중산층의 생활 양식 등을 파악하는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 패널은 위 연구에서 불평등과 권력의 작용을 찾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위 연구가 너무 좁은 (Micro) 범위의 연구이며, 정치적 수학적 기반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연구가 역사적 맥락에서 과거 과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계급 구분을 연상시킨다고 밝힌다. 동시에 그는 이후 마르크스 주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계급이 사용되었음을 짚으며 이러한 착취와 권력의 매커니즘의 고발이 계급 구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널 중 한명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본 설문조사에서 그는 문화적, 사회적 자본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밝힌다. 그는 딸을 기르느라 밖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문화적 자본에서의 낮은 점수를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서의 낮은 점수에 대해선 자신이 비사회적이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지인들이 모두 같은 업종에 근무하여 업무가 끝나고 따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Opinions

1. 본인의 계급은 어떤 계급에 속할까?

먼저 위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의 7가지 현대 계급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상위 계층은 엘리트 계층이다. 이들은 매우 높은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높은 사회적 자본 역시 지니고 있으며, 매우 수준 높은 취향의 문화 자본을 지니고 있다. 약 6%를 차지한다. 다음은 기성 중산층이다. 높은 경제적 자본과 평균적으로 잦은 사회적

만남을 가지며 수준 높은 취향을 지닌다. 약 25%를 차지한다. 다음은 기술적 중산층이다. 높은 경제적 자본을 지니며 평균적으로 매우 잦은 사회적 만남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보통의 문화 자본을 지닌다. 약 6%를 차지한다. 다음은 신흥 부유 노동 계층이다. 비교적 높은 편의 경제적 자본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사회적 만남을 갖는다. 보통의 취향을 가졌으나 좋은 신흥 문화 자본을 향유한다. 약 15%를 차지한다. 다음은 전통적 노동 계층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자본을 지니나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은 사회적 만남을 갖고, 낮은 취향을 가지고 있으나 신흥 문화 자본을 향유한다. 약 14%를 차지한다. 신흥 서비스 노동 계층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자본을 지니나 가구의 수입은 적당하며, 적당한 사회 만남을 갖고, 취향은 낮으나 신흥 문화 자본을 매우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약 19%를 차지한다. 다음은 최하층, 불안정 노동 계층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자본 모든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들은 약 15%를 차지한다.

연구 결과를 읽자니, 문득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해졌다.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각 계급별 대표 직업 및 나이, 경제적 자본 수치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가구'가 아닌 '개인' 대상 연구이나 경제 인구가 아닌 본인은 포함되지 않을 듯 하여 본인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인의 부모님은 모두 교사로 기술적 중산층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직업이었다. 또한 평균 나이 역시 52세로 매우 비슷했다. 가구 소득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동산 등의 부수입 포함 엘리트 계층과 기성 중산층 사이라고 판단했고, 가구 저축액은 본인 저축액만으로도 엘리트 계층 저축액을 크게 상회했다. 집값 역시 엘리트 층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경제적 자본의 경우 연구 진행과 현재 시점에서 약 8년 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한 계급씩 기준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업, 나이 측면에서는 기술적 중산층, 경제적 자본 측면에서는 기성 중산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평소 본인의 인식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결과였다.

2. 위 연구는 어떻게 불평등을 은폐하는가?

앞서 한 패널리 지적했듯 위 연구에서는 착취, 권력 작용에 기반한 불평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불평등을 제외한 수리적 계급 연구는 결국 계급을 구성하는 체제에 대한 확인일 뿐이며, 이는 체제 내 불평등의 은폐로 이어진다. 본인은 위 연구가 두가지 측면에서 착취를 은폐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첫째, 계급 구분 지표의 복잡도를 높여 착취 구조를 흐린다.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적 자본을 세밀한 항목으로 나누어 이를 수치화하고, 각 자본별 점수에 따라 7가지의 계급으로 나뉘는 주장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우 수직적인 개념인 '계급'을 구분짓는 '자본별 점수'가 온전히 수직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예시로 기성 중산층과 기술적 중산층은 경제적 자본이 비슷함에도(수입은 기성 중산층이 더 높으나 저축액은 기술적 중산층이 약 3배 더 높다.) 문화적 자본의 차이로 계급의 상하관계가 나뉜다. 전통적 노동 계층은 신흥 노동 계층보다 수입 및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더 낮음에도 경제적 안정성(부동산 등)에서의 점수로 더 높은 계급에 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도 및 비일관성은 계급의 수직적 성격을 희석하고, 착취 구조를 흐린다. 나보다 낮은 경제적 자본을 가진 이에게 착취 당할 수 있는가? 취향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본만 기른다면 쉽게 계급 상승이 가능하다면 계급은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이동 가능한 비고정적 개념이 아닌가? 위 연구의 계급 분류는 이러한 의문을 야기시키고, 이는 결국 극단적 경우를 제외한 희색 지대의 불평등의 원인을 자연히 개인이 나눠지게끔 한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불평등이 '공정', '경쟁'의 탈을 쓰도록 하며 이는 착취 구조를 더 공고히 할 뿐이다.

둘째, 수치화되지 않는 노동을 배제하여 착취 자체를 은폐한다. 위 연구는 가구 데이터를 사용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다만 연구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들도 존재한다. 바로 비경제적 인구이다. 이에는 정말 경제적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 유아, 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인구도 포함되어 있다. '주부'는 이의 대표적 예시이다. 이들의 노동은 임금 노동으로 구분되지 않으나 돌봄노동, 가사노동 등은 실질적 경제 가치를 창출해낸다. 이들은 왜 무급노동을 하는가? 가구의 입장에서, 사회의 입장에서

유모, 집사 등으로 대표되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이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무급노동을 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착취는 단순히 노동 가치 절하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는 가정내 남성이 여성에게 특정 노동을 지시할 수 있는 권력 작용 역시 이들이 겪는 착취 관계 내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위 연구는 이러한 다층적 착취 관계를 무급노동이라 수치화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이는 또 다시 노동 가치의 부정을 낳아 착취 관계를 뒷받침한다.

본인은 위 연구가 현대 영국 내 다양한 개인의 삶을 수리, 통계적으로 잘 유형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급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 혹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고려하면 이는 잘못된 유형화라고 생각한다. 앞서 밝혔듯 위 연구는 계급 구분의 복잡성을 통해 계급이 갖는 수직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선택적 세분화를 통해 착취를 은폐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계급 연구'는 단순히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을 넘어, 착취, 권력 관계를 조명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일 것이다.